

## 培養英材의 제 2 세기를 여는 培材大學

李 聖 根

(培材大 學長)

### 1. 近代教育史 최초의 大學, Paichai Colle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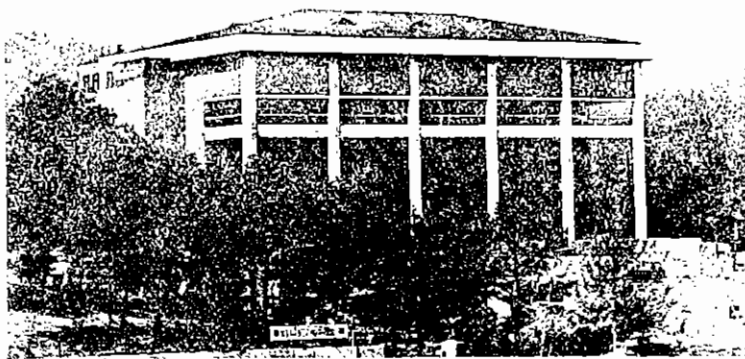
배재대학의 역사는 미국의 감리교 소속 선교사 아펜젤러(Rev. Henry G. Appenzeller)가 1885년에 고종 황제의 윤허를 얻어 최초의 근대적 교육 기관인 培材學堂을 서울 정동에 창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당시의 학당이 위치해던 정동 교정에는 지금 '신문화의 요람지'라는 標石이 서 있다. 이듬 해인 1886년 6월 8일에는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증표로 당대의 명필 丁學喬가 쓴 培材學堂이라는 교명과 현판을 고종 황제로부터 하사받았다.

1891년에 이르러 배재학당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사에 있어서 최초로 대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또한 1895년 3월에 배재대학은 Paichai College 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비생 200 명의 3년제 대학교육을 위탁받았다. 같은 해 9월에 개편된 학제와 교과 내용은 정규 대학 과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영어과에 106명, 국한문과에 60명, 신학과에 6명의 학생을 받아서 가르쳤고, 교수진은 아펜젤러 등 6명의 선교사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윤치호와 서재필 등이었다.

위에서 보듯이 培材大學의 設立은 근대 교육

의 보급을 원해던 고종 황제의 뜻을 교육 선교의 목적으로 내한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받아들여 이를 충실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고종 황제의 소원은 그가 내린 교명 '배재'가 培養英材라는 말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도 쉽게 이해되는데, 선교사들은 배재학당을 The Hall for the Rearing of Useful men 이라고 풀이하고 있었다. 배재대학은 그 이름 그대로 周時經이나 李承晚과 같은 개화 운동을 위한 수 많은 유용한 인재(useful men)를 길러냈으나, 아펜젤러 목사의 순직(1902년)과 일제의 탄압으로 1915년에 대학교육 과정이 중단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오늘의 배재대학이라는 명칭은 해방 후에 부활된 것이다. 구한말의 배재대학에서 교육 받았던 당시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학교 부지를 회사하여 서울 장위동에 건물 기공식까지 거행하였다가 이듬 해의 4·19혁명으로 무산되고, 1977년에 와서 허길래(Miss Clara Howard)박사가 설립한 같은 감리교 학교인 大田女子初級大學과 재단을 합병함으로써 배재대학의 문을 다시 열게 되었다. 4년제 정규 대학으로 출발을 보게 된 것은 1980년 12월이었다.



◀ 培材대는 사람과 자유의 건학 이념 실현을 위하여 民主主義 敎育과 訓練을 실시하고, 自由人과 敎養人을 만드는 敎養敎育을 강화시킨 'uncommon university' 이다.

## 2. 校訓 '慾爲大者 當爲人役'

배재대학의 교육 이념은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眞理를 추구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온 인류와 사회에 앞장서서 이바지할 人材養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재대학의 교육 이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유명한 교훈은 바로 "스스로 크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섬기라"이다. 이는 창설자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장 사랑하던 성서 구절(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따온 것으로 아펜젤러의 비서이며 漢學者였던 趙漢奎가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慾爲大者 當爲人役'이다.

배재대학의 교육 이념은 창설자 아펜젤러의 교육 철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핵심은 사랑과 自由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사랑(眞理)과 자유(民主) 사상이 그 핵심 이루고 있는데 이 양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교훈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진리(사랑)가 있는 곳에는 항상 자유함이 있는 법이다.

창설자가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민족 사랑을 의미했다. 그는 培材에서 이 사랑을 가르치고 보여주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죽어 갔던 것이다. 그는 하

나님과 민족에 대한 사랑을, 1895년부터 학생 참여가 의무화된 예배 시간에서 가르치고 독립 협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동으로 나타냈던 것이다.

아펜젤러의 자유 사상은 또한 解放의 개념, 즉 봉건적 사상 체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고 또한 갖가지 봉건적 학습과 억압·착취에서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선 배재학당을 통해 국가가 하지 못하던 民主敎育, 즉 특정 계급의 자녀들에게만 베풀었던 교육을 비로소 평민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학생회라고 불리우는 協成會를 1896년에 조직케 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가르치는 民主主義 敎育과 訓練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아펜젤러는 또한 벌써부터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동역관이나 기술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自由人과 敎養人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교육 이념의 대전제를 세웠던 것이다.

사랑(진리)과 자유(민주)가 핵심이 되는 교육 이념과 교양교육의 강조는 배재대학 창립 제2세기를 맞는 현재에 있어서도 배재대학의 변함 없는 교육 이념이자 학풍으로 살아 있다.

### 3. 培材大學의 現況과 特性

培材大學은 그 연원이 비록 18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은 대학이지만, 4년제 정규 대학이 된 지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 대학으로서의 면모가 완전히 갖추어 있지는 못한 형편임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교적 적극적인 재단의 지원과 교수, 학생, 직원 그리고 졸업 동문들의 협력과 발전 의지가 자랑할 만하기에 그 앞날이 매우 밝은 것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 대학의 현황과 특성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基督教 教養教育

설립 연혁에서 보는 것처럼 基督教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을 펴는 한국 最古의 기독교 사학이다. 교칙으로서 기독교 과목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고 있고, 특히 학생 채플을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채플은 기독교 의식에 의해 진행되지만, 사회 명사를 자주 초청하여 강연을 베풀도록 함으로써 교양 강의로서의 성격을 겸비한다. 학교 안에 송림이 우거진 야외 광장을 조성하여 채플 장소로 사용하고 학생 자치 조직인 크로스중창단의 아름다운 성가 합창과 함께 사회 명사들의 감명어린 설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에 젖어들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基督敎的인 사랑(진리)과 함께 自由主義가 이 大學의 傳統的인 學風인 까닭에 학내의 분위기는 매우 자유스럽고 민주적이다. 교수나 직원의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로서 구성되어 있다.

#### 2) 有志財團의 公共性과 大學運營의 民主性

역사 깊은 기독교 사학이 흔히 그러한 것처럼 배재대학도 이른바 owner가 없는 대학이다. 이 대학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 배재학당의 이사진은 교단의 유지, 선교사, 졸업생 대표 그리고 사회 유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 결정이 이사회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학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학사 업무에 대한 재단의 간섭도 비교적 없는, 말하자

면 모범적인 사학에 해당한다. 흔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립대학의 각종 비리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사학의 비리나 부정의 가장 큰 원인이 大學財政의 절대적 貧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면 비리가 없는 만큼 재정 사정도 그다지 풍족치는 못하다. 다만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수익 재산이 비교적 충실하여 1989학년도에 경우 약 6억 원에 이르는 전입금이 대학으로 들어왔다. 소규모 대학이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 財團轉入金 의존 비율이 아주 큰 편에 속한다.

영세 규모의 대학으로서는 學內의 意思決定도 매우 民主的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직을 갖는 교수의 비율이 다른 대학보다 크지만, 그만큼 학사 운영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며 보직 교수의 임기가 2년으로 관례화되어 있고 다수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학장의 학사 운영에 자문하고 있다. 대학 본부의 부서별로 그리고 학부 및 학과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自律的으로 집행케 하고 있어 조직 단위에 따른 책임 운영과 민주적 행정을 가능케 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學務行政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 반영은 벌써부터 학생회를 통한 건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1989년 여름 방학에 구성된 大學發展委員會는 전체 대학 구성원이 학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재단 이사, 보직 교수, 평교수, 학생, 직원 노조, 학부형 및 졸업생 대표로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또한 중요한 사항마다 소위원회와 특별 위원회를 두고 있다. 지난 해 1학기에 동결되었던 재학생의 등록금이 2학기에 와서 충청 지역에서 최초로 6% 인상 조정되었던 것도 이 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가능했던 것이다.

#### 3) 中小規模의 地方大學

'90년도 현재의 배재대학은 5개 학부 23개 학과를 두고 있는 입학 정원 990명의 중소 규모 대학이다.

##### ·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 · 사회과학부

법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소련학과, 중국

학과

· 사범학부

유아교육학과, 가정교육학과, 음악교육학과,  
미술교육학과

· 이공학부

응용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유  
전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 국제산업학부

전자계산학과, 원예학과, 국제자원개발학과,  
의류학과

학과 수에 있어서는 인문·사회과학과 자연 계열의 기초 및 첨단 분야의 학과가 당락된 23개 학과에 이르고 있어 다양한 전공 분야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학문의 종합화가 가능한 종합대학 체제(university)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른 학과의 모든 개설 과목을 자유 선택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 학점에 포함시킴으로써 편협되지 않은 學際的인 지식의 습득을 가능케 하는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학과별 입학 정원이 모두 40명 또는 50명으로 책정되어 있는 영세 규모의 학과 뿐이므로 학과별 소속 교수의 수가 일반적으로 4명 내지 5명을 초과할 수 없어 대학원 과정 개설 학과의 증대와 함께 학문의 폭에 깊이를 더해 나가야 함이 앞으로의 과제로 되어 있다.

대전에 있는 지방 대학이기에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 여건으로 인해, 또한 배재라는 학교 명칭의 잇점 때문에, 아울러 대전시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국의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측면이다.

#### 4) 特性學科

배재대학의 특성 학과로는 유아교육학과가 그 전통 깊음 때문에 지정을 받았으나, 최근에 개설된 소련학과, 중국학과 그리고 국제자원개발학과를 주목할 만하다. 앞의 두 학과는 종래의 어문계열과는 달리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학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법률 등 이른바 地域研究를 목적으로 하는 학과이다. 하나의 학문인 동시에 實用性을 추구하는 까닭에 그만큼

심층적인 학습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國際資源開發學科는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볼 때 海外資源 開發輸入의 필요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개설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학과이다.

#### 4. 培材大學 제 2세기의 비전

培材學堂이 창립된 지 이제 105년이 된다. 그 동안의 1 세기가 民族解放과 民族自立을 위한 투쟁기였다면 앞으로의 2 세기는 民族雄飛의 시대일 것이다. 배재학당의 대학 과정 개설 1백주년을 앞두고서 21 세기를 준비하는 대학으로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은 절실하다. 배재대학의 장기 마스터 플랜은 현재 학내에서 논의 중이지만, 발전 계획의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교통·통신의 혁신적 발전과 무역의 비약적 확대에 의해 종래의 국경 개념 대신 하나의 지구촌 개념이 정립될 21 세기는 한국이 선진 경제권의 일원으로 편입된다는 것을 想定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人材養成 및 研究가 가능한 대학의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소규모 지방대학이라는 제약 여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크다.

1) 財政自立이 가능한 中規模大學으로의 育成  
등록 학생의 수가 3,000명 남짓한 현재의 규모를 서기 2000년까지 대학원 학생을 포함하여 약 7,000명 규모의 대학으로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초대규모의 대학이 결코 절적으로 우수한 대학으로서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나 재단법인의 教育投資 능력의 한계로 보아서도 이 이상의 규모는 자제할 수밖에 없다. 학생 수의 증가도 증과보다는 학과별 정원 증가에 치중하고 종합대학으로서 필요한 일부 학과만 신설할 계획이다. 전체 23개 학과 가운데 11개 학과가 자연계열이므로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자연계열의 비중이 커서 이 분야는 특히 기존 학과의 충실한 육성이 보다 절실하다.

2) 地域研究學科 육성 및 教育의 國際化 추진  
2000년대까지 한국은 國際開放化를 완료함으

로써 선진 경제권의 일원으로 편입될 것이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행동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21 세기를 사는 한국인은 그만큼 개방적인 國際人으로서의 思考方式과 더불어 국제 지역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심층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중국학과, 소련학과 및 국제자원개발학과를 두고 있는 배재대학은 이들 학과의 육성은 물론 다른 지역학과도 확충하는 한편 국제문제연구소의 활성화 그리고 국제정책대학원의 신설·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멀지 않은 미래에 서해안이 중국 대륙과의 교역 중심 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며, 대전은 북방 교역 및 군사 행정의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배재대학은 또한 현재 4 개국 6 개교에 이르는 해외 자매 대학의 수를 '90 학년도에는 9 개국 13 개교로 늘릴 것이 확실하고 '90 학년도 중에 중국에 학생을 파견하여 현지 연수를 실시하는 등 敎育의 國際化를 서두르고 있어 이러한 측면이 앞으로는 배재대학의 새로운 특성으로 추가될 것이다.

### 3) 基礎·尖端應用學科의 육성

소규모 지방대학으로서 서울의 명문 대학과의 질적 수준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서 지역 특성에 알맞은 학과의 집중적 육성을 들 수 있다. 배재대학은 앞서 말한 地域研究學科의 육성 이외에 대전에 대덕 연구 단지가 있고 이곳을 한국 최초·최대의 연구 중심 도시로서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시책임을 중시하여 기존의 자연계열 기초·첨단 응용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학과 학생 정원의 증원과 함께 교수의 증원, 실험 기자재 확충 및 대학원 과정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도 이 분야의 전임 교수들은 대부분 국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진 학자들로 채워져 있어 후발 대학으로서의 위치가 오히려 우수 교수 초빙에 유리한 잇점으로 작용한다.

### 4) 敎養敎育의 強化

단순한 지식인보다 敎養 있는 自由人의 養成

을 목표로 하는 아펜젤러의 敎育 이념은 현재와 미래의 배재대학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기초 학과 신설이 곤란하기 때문에 교양 학부에 역사학, 철학, 인류학, 정치학, 사회학 분야의 석학을 초빙하여 교양교육을 확충하는 이외에 은퇴한 사회 명사를 특임 교수로 환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취 의욕을 고취하고 象牙塔과 現實의 간격을 메우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21 세기를 사는 敎養 있는 國際人의 양성을 위한 교양교육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 5. 少數精銳의 uncommon university

배재대학은 4 년제 정규 대학으로서, 歷史가 日淺한 중소규모의 지방대학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아직은 시설을 비롯하여 연구·敎育 환경이 기존의 큰 대학들에 비해 부족한 대학이다. 그러나 대학으로서의 연원이 구한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또한 배재대학은 기업화된 대학은 더욱 아니며 대자본가인 교주가 있는 것도 아니다. 교단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아니다. 財團理事陣이 교단과 졸업생 그리고 사회 유지로 구성된 特異한 大學이다. 대학의 학사 운영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사가 폭 넓게 수용되는 민주적인 대학이며, 이른바 私學의 非理는 찾아 볼 수 없다. 제단의 수익 재산이나 전입금도 상대적으로 큰 대학이다. 다른 대학에서는 보기 힘든 特殊學科를 상당 수 갖고 있다. 즉 한국의 중소규모 대학으로서는 이례적인 'uncommon university'로서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대학이 추구하는 未來像도 양적인 확장을 명목적으로 추구하여 담모스 대학으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適正 規模의 대학으로 성장하고자 할 뿐이다. 지역 연구 학과의 육성에 의해 國際開放化 시대에 대비하는 한 발 앞선 경영을 추구하며 연구와 敎育 환경의 확충을 위한 투자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소수 정예에 의한 少數精銳 敎育을 지향하는, 基督教 신앙에 기초한 未來指向的 英才의 培養에 주력하는 'uncommon university'로서 그 존재 이유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고자 할 뿐인 것이다. \*